

인도와 파키스탄은 미사일개발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미사일 개발 신경전

인도 최초의 2단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파키스탄이 즉각적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두 나라 모두 발사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기는 했지만 이런 감정적 대응은 두 나라 모두 서방측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핵 억지력을 보유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인도의 아그니 II 중거리탄도탄

의 시험발사는 지난 4월 11일 행해졌다. 미사일은 오리사 해변의 새로운 발사장소인 휠러섬의 IC-4 발사대에서 발사된 후 2000km 정도 비행했다.

이에 파키스탄은 3일 후인 4월 14일 북동부의 젤름 지역에서 가우리 II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대응했다. 이 미사일은 1,100km 떨어진 발루치스탄 사막의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보도되었다.

또한 가우리 II 발사 하루 뒤, 파키스탄의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

는 사한이라고 불리는 1단 중거리 탄도탄을 최초로 시험했다고 밝혔다. 사정거리 750km의 이 미사일은 카라치 근처 해변에 위치한 손미아니에서 발사되었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1톤 무게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한다.

Launch Services사, West Indian사로부터 2천4백만달러 계약 수주

러시아의 상업용 위성 발사 서비스 업체인 Launch Service사가 최근 West Indian Space사로부터 이스라엘이 만든 인공위성 세 개를 발사해주는 2천4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수주했다. Launch Service사는 Cosmos 3M과 Start 1 발사체를 이용해서 고객사의 위성을 발사대행해 준다.

발사될 위성은 무게 300kg짜리 고해상도 원격 정찰용 에로스 위성이며 군용 탄도 미사일을 기반으로 제작된 Start 1 발사체에 의해 궤도에 진입될 예정이다. 발사는 12월에 러시아 동부 스포보드니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5개의 위성을 더 발사할 예정인 West India Space는 이스라엘 항공산업(IAI)와 미국의 소프트웨어제작사인 Core사의 합

작 벤처기업이다. West India Space에서 운용할 민간용 Eros 위성은 우주궤도에서 촬영한 각종 지상 이미지를 이스라엘 국방부와 각 민간 회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미 공군, DSP 위성 손실

미 공군은 지난 4월 10일 DSP19 조기경보위성이 타원궤도장에서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이번 발사에 소요된 6억8천2백만 달러의 비용을 손실처리했다.

TRW사가 제작한 이 DSP19 위성은 보잉의 IUS(Inertial Upper Stage)에 부착된 채로 록히드 마틴 4B 발사체에 의해 케이프 케너베럴에서 발사되어 지구저궤도로 진입했다. 고도 36,000km의 원형 지구정지궤도 진입을 목표로 한 DSP위성은 IUS 1단에 의해서 지구정지궤도 전이궤도 진입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IUS의 2단 연소가 예정보다 일찍 중단되는 바람에 완벽한 궤도 전이에는 실패했다.

질량 2500kg의 DSP위성은 IUS 분리에는 성공했으나 통제장치에서 회전중인 위성의 파괴를 우려해 태양전지판을 전개시키지 않는 바람에 결국 탑재된 배터리가 소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미 공군에서는 이미 DSP 위성들이 지구 전역을 커버

할 수 있을 만큼 지구 정지궤도에 있기 때문에 위성 하나의 손실은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 DSP위성의 발사계획은 12월로 잡혀있다.

보잉사의 IUS는 지금까지 타이탄 로켓과 우주왕복선 발사임무에 22회 사용되었으며 그 중에 2회의 실패가 있었다. 올 7월 우주왕복선 콜럼비아호에 의해서 지구저궤도에 올려진 찬드라 X-Ray 관측장비를 고위궤도에 올려놓는데 IUS가 사용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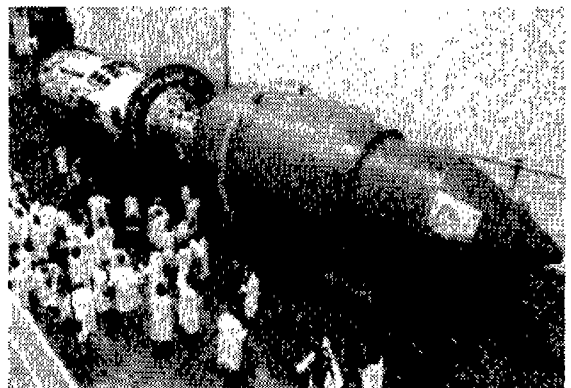
러시아, 국제우주정거장 서비스 모듈 완성

러시아의 국제우주정거장 서비스모듈이 지난 4월 26일 모스크바의 RSC 에네르기아 공작장에서 출고되어 바이크누르 우주기지로 옮겨졌다. 이 모듈은 원래 계획보다 거의 2년이나 늦은 올 11월 경에나 발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서는 9월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8월까지의 발사 날짜를 확정지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발사 지연의 원

인은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이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조립일정은 5월 20일로 예정된 우주왕복선의 발사를 제외하고는 이 서비스모듈이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확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억2천만 달러짜리 서비스모듈을 이용해서 내년부터는 국제우주정거장의 첫 번째 승무원들이 우주공간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 서비스모듈은 미국의 유니티 연결모듈을 통해서 러시아의 자리아 통제모듈과 연결된다.

유니티 모듈과 자리아는 지난 12월부터 이미 궤도상에서 연결되어 있다. 서비스모듈에는 주거공간, 생명유지시스템, 추진, 비행제어시스템, 전기동력분배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다. 이 모듈은 50여개의 주요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100개의 개별적인 단위 시스템들과 3,500종류의 전기배선이 사용되었다고 러시아 우주국은 밝혔다.



러시아의 국제우주정거장 모듈이 완성되었다